

2017년 선정 토대연구지원사업

결 과 보 고 서

사업명	2017년 선정 토대연구지원사업				
과제번호	NRF-59070-1		지원유형	총서학	
연구과제명	글로벌 시대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7. 09. 01 ~ 2020. 10. 31 (3년)				
연구책임자 성명	김영순		주관기관/ 연구소*	인하대학교/다문화융합연구소	
연구비	1차년도	256,099천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외)	연구책임자	1 명
	2차년도	258,463천원		전임연구인력	2 명
	3차년도	245,494천원		일반공동연구원	7 명
	4차년도	해당없음			
	5차년도	해당없음			
	계	760,056천원		계	10 명

*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소명 모두 기재, 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인 경우 기관명만 기재

차 례

I. 연구목적 및 방법 -----	1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1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5
II.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2
III. 연구결과 활용계획 -----	27
1. 연구결과 활용계획 -----	27
2. 연구성과 -----	30
IV. 참고문헌 -----	46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문화 구성원들(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등)과 내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에스노그래피(Ethnography)를 활용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총서를 발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주류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근원적인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사회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

세계는 정보화와 국제화로 인해 국제적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국가를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과거의 이주는 일방향적인 이주로 이주국의 문화에 동화를 주장하였다면, 국가적 이주가 다양해지면서 모국과 정주국의 이중적 정체성을 소유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의 이동 및 개인과 공동체의 만남, 자본과 정보의 교류, 현실과 가상의 공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혼합으로 동질성과 이질성이 혼재된 트랜스내셔널리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초국적 유대관계 속에서 사회적 위치와 정체성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김영순 외, 2014) 이처럼 초국적 이주는 그동안의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이주민의 문제는 송출국과는 별개의 정주국 내 사회통합의 문제로 분석할 수 있었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 초국적 이주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이주민의 문제는 그들의 모국과 정주국을 넘나드는 사회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복잡다변성을 띠고 있다.

법무부(2021)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 체류하는 이주민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2,011,259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자는 1,115,608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자는 467,721명, 단기 체류자는 427,930명이다. 또한 국적별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1,018,074명), 한국계 중국(679,729명), 베트남(176,738명), 태국(153,259명), 미국(143,568명), 우즈베키스탄(62,870명)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이주민 현황을 통해 볼 때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 있으며, 이주민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를 통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의 형성이라는 현대 사회의 세계화 흐름은 한국 사회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최병두(2011)에 따르면, 초국적 이주는 새로운 지구-지방적 과정을 배경으로 전개되어 다양한 결과들을 초래한다. Bommes &

Morawska(2005)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시대로서, 이러한 시대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Castles & Miller(2003)와 최병두(2012)에 따르면, 초국적 이주는 이들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이주해온 지역 및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이주의 전 세계적 영향 중 경제 영역을 보더라도 이주노동자의 경우 모국과 이주국 모두에 경제성장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이주민은 저출산의 대안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초국적 이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처우 개선 문제, 이주민 가정 자녀 대상 정책적·교육적 차원의 대안 제시, 미등록 외국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문제에 있어서 이주민의 생활세계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갈등, 모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국가적·문화적 정체성 문제 등을 간과해 왔다. 외국인의 한국이주는 노동력 수요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의 귀환과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의 국제결혼은 농촌에서 시작하였으나 차츰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총 168,462명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남성보다 여성이 81.7%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로 이들의 국적은 중국이 35.5%(중국 59,879명, 한국계 중국 22,522명)이며, 다음으로 베트남 26.0%(43,761명), 일본 8.7%(14,651명), 필리핀 7.1%(12,015명), 태국 3.6%(6,001명), 캄보디아 2.8%(4,641명), 미국 2.6%(4,3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법무부, 2021).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혜택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맥락까지 동일하게 조정하려고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을 다수 주류문화집단과 동등하게 놓기 위해 종족 정체성의 다양성을 강제로 통합하려는 이러한 기존사회의 단일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몰살하거나 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문화 다양성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소수에 대한 차별을 불러와 민주적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김용신, 2011; 설동훈·이병하, 2012; 장인실·박영진, 2015).

또한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개별적 내러티브에 관계없이 그들을 집단으로 묶어 이해하려는 태도는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려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다문화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의해 모든 다문화 구성원을 단일한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천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제시대에 국제이주로 발생하는 문화의 충돌을 예방하고,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과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

그럼 운영은 결혼이민자에게 치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국가별 또는 문화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주류사회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동화 형태의 사회통합이 아니라, 이민자 대상에 따른 차별화와 체계적인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외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대부분 동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민,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국제결혼, 난민,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문화집단의 구성원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정책을 통해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집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기회를 마련하고, 모든 이민자와 내국인이 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관점에서 소수자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정책이다. 이에 비해 상호문화주의는 주류사회 뿐만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관점에서 합의에 의한 문화적 공존을 지향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호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다문화지향'정책에 가깝고 지극히 동화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박성혁·성상환, 2808; 윤인진, 2008; 박성혁 외, 2009).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화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서구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명목상'의 동화주의적인 사회통합정책은 일종의 즉각적인 처방정책으로서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외국인과의 구조적인 갈등이나 불평등을 심화시켜, 내국인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배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설동훈·이병하, 201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초국적 이주와 이로 인한 새로운 글로벌 다문화 사회공간이 창출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관련 사회적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문화 구성원들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등의 문화적응 양상을 살펴봄, 사회통합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인지정서적 영역에서의 일상의 적응과 사회제도적 영역에서의 구조적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총서 발간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울러 총서 집필을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와 내용들, 즉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적응 현상들에 대한 관찰과 심층인터뷰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류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과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새로운 사회통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를 분석하여 한국형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총서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가로 구축하여 본 연구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회통합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차별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 내부의 민족적 동질성이 사라지고, 민족간의 차이나 경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단선적인 동화과정’이 아닌, 이주민 집단 내부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체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중국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2차년도에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3차년도에는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현장조사와 참여관찰, 심층인터뷰를 사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결과를 정기·수시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전문가 네트워크 및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개최를 통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거시적인 사회통합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면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언어, 문화 등 인지정서적 영역과 교육, 경제, 인권, 복지 등 사회제도적 영역에서 정주민과 이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 연구는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로 사회통합정책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계 등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기반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차년도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의 중앙아시아계 이주민, 재한 동포, 재외 동포 등의 생활세계 기반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3차년의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할 것이다. 그리고 3차년의 사회통합모형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생활세계 기반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통한 사회통합 총서 발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돕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에 기초한 갈등과 타협의 변증법에 따른 사회 발전의 원심력을 부정하고, 한국인이라는 일체감의 구심력만을 강조하는 인위적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통합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적 융합(Social Integration)’,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노대명,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다문화 구성원과 내국인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로써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한 공동체의 틀에 맞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다양한 개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즉, 한 공동체의 사회 규범에서 동떨어진 소수자일지라도 그들이 사회 규범을 수용하고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구성원 간의 ‘왜곡되지 않은 이상적인 의사소통’(Habermas, 1981)을 이끌어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회통합의 개념적 층위를 모두 아우르는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와 사회통합 총서’는 사회 내 갈등과 협상의 변증법으로 인한 원심력과 구심력 간의 긴장과 타협을 통해 일종의 ‘전체사회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상호작용과정’(고상두·하명신, 2012)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1) 1차년도 연구 내용

1차년도 연구는 국내·외 사회통합정책의 동향에 관한 총서 발간과 파일럿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에스노그래피 접근 방법으로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차년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합 이론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과 교차되고 있는 연구결과의 차별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인해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가 ‘평행사회’로 치닫고 있는 서구 다문화사회의 갈등 원인과 동화모델이 아닌 동화주의 방향의 모델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경험한 외국의(유럽,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사회통합정책을 분석하여 총서를 발간함으로써 현실로 다가온 한국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실제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통합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현장에 접근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한다. 현재 사회통합정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귀화 등과 같은 외국인 통제정책을 담당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의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무부는 차별배제모델에 따른 정책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는 다문화모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법무부의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훈령에 의해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주류문화에 대한 학습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동화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보다 맥락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논의할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기존에 제시된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에스노그래피 접근 방법에서 검토하고 실질적인 문제와 대안, 그리고 향후 발전적인 비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집단들 간에 상호인정과 공존 및 상생하는 공동체적인 사회통합의 삶을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한 공동체 내 다양한 집단들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며 평등한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요청하기 때문이다(남부현·오영훈 외, 2016).

넷째, 다문화 구성원과 내국인의 문화가 단순히 공존을 넘어서서, 서로간에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종의 파일럿 연구로써 중국계(한족과 조선족)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1차년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획하고 토대를 마련한다. 1차년도에는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생활세계에 대해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현지조사(Fieldwork)를 실시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현지조사에서는 중국계(한족과 조선족)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속성에 정통한 전문가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파일럿 연구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한다.

다섯째, 1차년도의 연구결과인 중국계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개발하고, 총서를 발간한다.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구성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에스노그래피 접근 방법의 롤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정책 모형’은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구상하는 데 토대가 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작용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모형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사회통합정책의 이해를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맥락적인 이론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실체를 다층적으로 조망한다.

(2) 2차년도 연구 내용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에 제시한 국내·외 사회통합정책의 동향에 관한 총서와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파일럿 연구에 대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베트남계, 필리핀계, 캄보디아계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와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차년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년도의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파일럿 연구를 통해 생성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의 장·단점과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에 문제점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회통합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완전한 문화적 동화를 추구하는 동화모델인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경제적 동화'(고상두, 2012)를 포함하여 서로 합의된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상호문화모델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한다. 경제적 동화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복지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국내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논의는 그동안 서구 사회통합정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1차년도의 파일럿 연구를 토대로 2차년도 연구 대상 국가인 베트남계, 필리핀계, 캄보디아계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통합정책이 수행된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세 국가의 다문화 구성원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적 요구를 도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민자는 주류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며, 문화와 언어 및 종교 등 배경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김준현·문병기, 2014).

셋째,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연구결과를 국외 학자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간과하고 있었거나 논의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국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활발한 연구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2차년도의 연구결과인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는 사회통합정책의 흐름을 다문화주의모델을 포함한 상호문화모델로 토대가 될 수 있다.

넷째, 이렇게 완성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 대상 국가의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 총서는 실제 현장에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3차년도 연구 내용

3차년도 연구는 1차와 2차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계, 인도네시아계, 러시아계의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이들 국가에 대한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한다. 또한 본 연구대상 국가인 7개 국가의 사회문화적 속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7개국 통합 총서를 발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차년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년도의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를 토대로 3차년도 연구 대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계, 인도네시아계, 러시아계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통합정책이 수행된 현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세 국가의 다문화 구성원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정책적 요구를 도출한다. 또한 세 국가의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를 초청하여 라운드 테이블 및 포럼을 개최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비교 및 검증은 통해 이들의 현장에 대한 요구 및 실질적인 문제점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내의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일조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계, 인도네시아계, 러시아계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사회통합 총서를 제작한 다음, 국내 현장 전문가 및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물인 사회통합 총서의 현장 접근성 및 학술적 가치 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제작된 사회통합 총서는 포괄적인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사회통합정책의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근거와 타당성을 마련한다.

셋째, 1차년도와 2차년도 및 3차년도의 연구결과인 7개 국가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와 사회통합 총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7개국 통합 총서를 발간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각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은 주류사회 중심의 단선적인 사회통합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생성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와 사회통합 총서는 거시적으로는 다문화주의 모델을 기반으로 상호문화모델을 지향하고, 미시적으로는 문화공존에 있어서 국가별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이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의 미래 비전을 지향하는 데 핵심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1) 1차년도 연구방법

1차년도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아시아(중국, 일본, 싱가포르), 북미(캐나다, 미국),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과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파일럿 조사를 위한 현지조사(Fieldwork),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표적집단면접법(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속성에 대한 사례와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들을 영역과 범주에 따라 구분하고 분석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구체적인 사회통합정책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에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문헌연구 중의 하나인 서술적 고찰은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하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광범위한 영역과 주제를 다루는 데 문헌 선정과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팀에서 진행할 체계적 문헌고찰은 기존 연구 자료를 활용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선정 기준에 맞는 근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고찰하고, 사회통합 이론 및 문화다양성 이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이 더욱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될 국내외 사회통합에 관한 쟁점과 이론은 파일럿 연구의 방향 설정과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사회통합 총서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다음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의 사회통합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한족과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와 심층면담을 활용한다. 현지조사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들의 삶의 경험과 정서는 물론, 그와 관련된 공동체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정치, 행정, 법 등의 요소들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여 이야기를 구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전문가의 심층인터뷰를 위한 중국 현지답사를 통해 파일럿 연구는 보다 타당성 있고 생생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파일럿 연구를 통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는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구성원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롤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2) 2차년도 연구방법

2차년도의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경험적·실증적으로 검증, 확인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국가에 대한 현지조사와 이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1차년도의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의 파일럿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사회통합정책의 현장을 관찰하고 다문화 구성원의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FGI를 진행한다.

현지조사는 연구대상자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연구자는 체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직접적·대면적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를 수집한다(윤택립, 204). 자료 수집은 일관되게 연구문제와 현장의 맥락에 종속된다. 또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직접 문화현상의 참여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관찰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즉, 연구자가 참여자(emic)와 관찰자(etic)라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면서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의 문화에 대해 현실에 가깝고 깊이 있는 기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조성남 외, 201). 따라서 2차년도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 구성원 나라 중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국가에서 현지 조사한다.

심층인터뷰는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느끼는 생활세계의 생생하고 깊이 있는 삶의 사례들로부터 의미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게 해 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와 더불어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FGI를 통해 발간될 사회통합 총서는 각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현지에 참여하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또 기록한다. 이후 수집한 자료와 현지에서 기록한 노트와 일지를 토대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의미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생활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유형별 영역별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고 베트남계, 필리핀계, 캄보디아계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한다.

(3) 3차년도 연구방법

3차년도에서는 1차와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계, 인도네시아계, 러시아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한다.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사회통합 총서 발간을 위해 국내의 현장 전문가와 관련 학자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세 국가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사회통합 총서와 관련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이 현실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전문가 집단은 특히, 사회통합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했거나, 관련 연구를 시행한 연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산하의 다문화 관련 실무 담당자와 학계와 연구 기관의 연구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인터뷰 대상자

들은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 행위자 특성, 사회통합정책의 목표와 성과, 주요 한계와 그 원인에 관해서 논의하고 전반적인 사회통합정책의 평가와 방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다.

심층인터뷰 대상자인 전문가들을 사회통합 관련 학술대회에 초청하여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로 제작된 사회통합 총서들도 국내 현장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본 연구대상 국가인 7개 국가의 사회문화적 속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7개국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할 것이다. 따라서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사회통합 총서는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1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1차년도 최종 목표는 사회통합 총서 1권과 2권의 발간이다. 이를 위해 1)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2)파일럿 연구, 3)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연구, 4)사회통합정책 모형 개발, 5)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연구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에서 제시한 총서 발간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더하였다. 1)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는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을 유형별로 결혼이주여성 35건, 노동자 15건, 유학생 15건으로 총 65건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였다. 2) 파일럿 연구, 3)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연구, 4)사회통합정책 모형 개발, 5)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은 국내·외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수행의 결과 1차년도의 목표로 삼은 두 권의 총서에 대한 원고 작성이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틀을 설계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웹상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를 비롯해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에게 개방하고자 한 것이다.

2) 세부 추진 실적

본 연구팀의 1차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차년도 계획 및 추진결과

계획		추진결과	비고
당초 계획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및 이론 연구	- 국외(북미(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아시아(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9개국 및 국내 사회통합정책 분석 - 초국적 이주, 상호문화주의 등장, 문화적응, 사회통합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론 연구	
	현지조사	-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 60명 사례조사 계획하여 총 65명 사례조사 실시 - 국내 및 국외 현지조사 실시(경기, 안산, 부천 등 국내 주요 다문화 구성원 거주 지역 및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국외 현지조사 실시)	
	정기 워크숍 3회 개최	- 연구 사업 개시(2017년 9월), 중간보고(2018년 5월), 최종보고(2018년 6월) 3회 정기 워크숍 개최 완료 - 3회 정기 워크숍 이외 7회의 워크숍을 계획 및 실시하여 월 1회 총 10회의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 당초 3회 계획 대비 7회 추가 실시	
	사회통합 총서 1권, 2권 발행	- 『총서 1권.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집필 완료 및 발행(2019년 1월 출간) - 『총서 2권.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 집필 완료 및 발행(2019년 1월 출간)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서버 구축	- 본 연구는 총서학 연구이나 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지식확산을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함 - 중국계 포함 전체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서버 구축 완료 - 영구 IP 주소: http://165.246.135.17:8080/xmlui - 임시 도메인: http://ethno.dns.net:8080/xmlui	
연구 수행 결과 관련 실적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 글로벌 다문화 포럼, 디지털로지 인문사회 포럼, ICME 국제학술대회 준비, 초국적 이주와 사회통합 학술대회 등 총 15회의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연구과제 관련 학회 논문 게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 연구인력, 전문위원 등 본 연구와 관련하여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총 35건의 논문을 게재함(사사표기 논문 총 13건)	
	연구역량 및 지식확산 제고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해외학자 초청 특강 실시(독일, 중국, 미국 등 3개국 해외학자 초청)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국내학자 초청 특강 실시(경기대, 경인교대, 중앙대, 서울교대 등) - 본 연구결과의 사회적 실천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지역 다문화 축제, 학교 다문화교육,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치유프로그램, 고려인 문화 행사 등)	

(1) 사회통합 총서 집필(1, 2권)

본 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통합 총서 2권을 집필하는 것이다. 총서별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총서 1권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는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 및 이론에 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를 인지정서적 영역(언어, 문화, 진로, 여가)과 사회제도적 영역(교육, 경제, 인권, 복지)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 연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영역별 사회통합 모형으로 총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통합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은 결혼이민자에게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국가별 또는 문화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주류사회 중심의 일방향이었고 일시적인 동화 형태의 사회통합이 아니라, 이민자를 정주민과 동일한 위치에서 공존과 상호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양방향적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양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개인 및 집단별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며, 이주민뿐만 아니라 정주민을 포함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의 대상은 이주민만을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 사회 시민 모두가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총서 발간의 목적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사회통합 대안 마련이 아닌,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 사회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총서 2권 『중국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는 중국계 이주민의 집단적 특성이나 개별적 내러티브를 이해하여 우리의 문화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넘어 그들의 개별적·집단적 생활세계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문화 구성원이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생활세계가 이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이러한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공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류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이주민의 근원적인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통합 모형을 구축한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이주민의 생애사 이해를 넘어 각 생활세계에서의 문화적응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2)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를 기반한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 중인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을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심층인터뷰 현황

구분	국가별(명)	유형별(명)	총인원
1차년도	중국계 (한족·조선족 등)	결혼이민자(35), 외국인 노동자(15), 외국인 유학생(15)	65명

<표 2>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한지 1년~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당 2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사회문화적 속성을 파악하여 사회통합 모형을 제시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두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5년 이내는 초기 정착기로, 5년 이후는 안정기로 간주하고 이들의 니즈도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당 10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자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5년 이내에 모국으로 귀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당 10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자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5년 이내에 모국으로 귀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하여 진행한 국가별·유형별 다문화 구성원의 인터뷰 대상자 수는 1차년도에는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을 한족과 조선족 각각 30명씩 60명이었으며, 추가로 5명을 더 선정하여 총 65명의 다문화 구성원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와 더불어 국외 다문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 주관 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이주민 중 다수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외동포가 많은 주요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총서학 연구의 심도 있는 진행과 후속 사회통합정책 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결과의 지식확산을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1차년도에는 서버 및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 중에서 DSpace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DSpace가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기관에서 채택되어 운영 중에 있어 그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수정·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커뮤니티의 규모가 비교적 크게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DSpac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이용자 관리, 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 등의 기능이 잘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는 현재 인터넷에서 DSpace의 소스를 내려 받아 인터넷에 연

결된 서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에 관한 기본 정보는 <표 3>과 같다.

<표 3> DSpace 기본정보

공식 명칭	다문화 생활세계 아카이브	비고
주소	http://165.246.135.17:8080/xmlui http://ethno.ddns.net:8080/xmlui	영구 IP 주소 임시 도메인
홈페이지 타이틀	DSpace Repository	차후 소스코드 수정을 통해 내용 수정이 필 요함
서버 사양	OS: Windows 10 CPU: Intel Core i5 RAM: 6 GB	

DSpace는 자료에 접근하는 이용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을 활용해 각 커뮤니티에 접근하는 이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 각 커뮤니티 아래에서는 또다시 하위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시 하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권한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팀’이라는 커뮤니티 내에는 ‘생애담 요약’, ‘연구성과물’, ‘전사자료’, ‘참고자료’의 컬렉션이 생성되어 있으며, 각 컬렉션에는 본 과제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해당 자료가 등록, 보존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료는 화면 우측의 Search DSpace 도구와 Browse 도구를 통해 검색된다. 현재 생성되어 있는 커뮤니티와 컬렉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으며 아카이브에 등록된 이용자 중에서 커뮤니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

디지털 기록물을 저장, 보존, 관리하기 해서 일반 컴퓨터의 파일/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DSpace와 같은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유는 디지털 기록물의 저장, 보존,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description)함으로써 디지털 기록물의 식별성, 상호호환성, 접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DSpace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업로드되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입력하거나 혹은 추가, 확장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4]는 DSpace에 업로드된 전사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한 예이다. 업로드된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더블린코어(DC) 메타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웹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이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더블린코어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국가, 민족, 이주형태 등을 표현하기 위한 독자적

인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코드를 메타데이터로 추가해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메타데이터 등록 화면으로 가서 필요한 자체 메타데이터 요소를 등록함으로써 유연하게 확장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다.

2. 2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 2차년도 목표는 앞에서 국내·외 사회통합정책의 동향에 관한 총서와 파일럿 모형을 바탕으로 베트남계, 필리핀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2차년도 최종 목표는 사회통합 총서 3권과 생애담에 대한 4권과 5권을 발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2) 파일럿 연구, 3)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연구, 4) 사회통합정책 모형 개발, 5)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에서 제시한 총서 발간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추가하였다. 1)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연구진은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을 유형별로 결혼이주여성 43건, 노동자 9건, 유학생 13건, 난민 9건으로 총 74건에 대한 자료 생성, 2) 파일럿 연구: 사회통합정책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프레임 구축, 3)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연구: 선행연구 고찰, 국내외 정책, 동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장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이론적 토대 마련, 4)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연구진 워크숍 등 토대연구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진행 이러한 연구 수행의 결과, 2차년도의 목표로 제시한 3권의 총서에 대한 원고 작성을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틀을 설계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웹상에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연구를 위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고자 한다.

2) 세부 추진 실적

본 연구팀의 2차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차년도 계획 및 추진결과

계획		추진결과	비고
당초 계획	현지조사	-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 70명 사례조사 계획하여 총 74명 사례조사 실시 - 국내 현지조사 실시(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을 유형별로 결혼이주여성 43건, 노동자 9건, 유학생 13건, 난민 9건)	
	정기 워크숍 3회 개최	- 연구 사업 개시(2018년 3월), 중간보고(2018년 6월), 최종보고(2018년 8월) 3회 정기 워크숍 개최 완료 - 3회 정기 워크숍 이외 4회의 워크숍을 계획 및 실시하여 월 1회 총 7회의 워크숍을 실시함 ※ 워크숍 당초 3회 계획 대비 4회 추가 실시	
	사회통합 총서 3권, 4권, 5권 발행	- 『총서 3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연구』 집필 완료 및 발행(2019년 12월 출간) - 『총서 4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 생애담』 집필 완료 및 발행(2019년 12월 출간) - 『총서 5권.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담에 나타난 주체적인 삶』 집필 완료 및 발행(2019년 12월 출간)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동남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수행 결과 관련 실적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 글로벌 다문화 포럼, 디지털로지 인문사회 포럼, - ICME 국제학술대회 준비, 초국적 이주와 사회통합 학술대회 등 총 9회의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연구과제 관련 학회 논문 게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 연구인력, 전문위원 등 본 연구와 관련하여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총 14건의 논문을 게재함	
	연구역량 및 지식확산 제고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해외학자 초청 특강 실시(싱가포르,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 미국 등 해외학자 초청 특강 7회 개최)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국내학자 초청 특강 실시(4회) - 언론보도자료(7건)	

2차년도 연구 실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연구 총서 집필, 둘째,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및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 총서 집필(3, 4, 5권)

총서3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연구』는 동남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이들의 생활세계를 탐색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를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 및 이론에 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를 인지정서적 영역인 언어, 문화, 진로, 여가, 상담과 사회제도적 영역인 복지, 미디어, 경제, 인권, 교육으로 구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총서는 먼저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특성을 살펴본 후,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영역인 인지정서적 영역과 사회제도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집필하였다. 생활세계는 권력 집단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제도의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로부터 구성된다. 다문화 생활세계는 바로 이주민들로부터 형성된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다. 다문화 생활세계에서의 주체는 정주민이라기보다 이주민이며, 이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생활세계를 일컫는다. 이 책은 바로 이 책은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이주배경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각 장의 다문화 생활세계 유형별 심층 연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동남아시아계 이주민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다. 자료수집은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의 틀인 인지정서적 영역과 사회제도적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 경험을 듣고 이를 기술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들의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수행한다. 이처럼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계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와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총서 4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 생애담』은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애담을 유형별로 기술하였다. 이들의 생애사를 통하여 나타난 생애담을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개인별 생애담, 노동자의 생애담, 유학생의 생애담, 난민의 생애담으로 구분하여 집필하였다. 우리는 다문화 구성원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넘어 이주민의 개별적·집단적 생활세계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 구성원이 만들어어나가고 있는 생활세계가 이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의 공간의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주민의 개별적 내러티브를 이해하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는 책이다. 이 연구는 주류 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있는 이주민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이주민의 내러티브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연구자와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실천적인 삶을 살며, 실천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가는 ‘말과 삶’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세계를 형성한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주민의 실천적 경험과 이에 대한 이주민 자신의 이야기 사이의 순환적

관계를 주목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들어서도록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총서 5권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담에 나타난 주체적인 삶』은 결혼이주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정착하게 되었는지 현대사회와 젠더의 관점에서 집필하였다. 특히, 가정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립하고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하고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 이 책은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에 주목하여 그들의 생애담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는 책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연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에 담긴 주체적 삶을 통해 온전한 인격체로 마주하고자 한다. 이 책은 주류 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이주민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통합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주민의 내러티브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연구자와 이야기하고,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실천적 삶을 살며, 실천 경험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가는 ‘말과 삶’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세계를 형성한 그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이주민의 실천적 경험과 이에 대한 이주민 자신의 이야기 사이의 순환적 관계에 주목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사회를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다문화 구성원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생활세계가 이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 다양성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공간의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결과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 중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구성원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유형별 연구참여자

국가명 유	유형별(명)	총인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외	결혼이민자(43), 외국인 노동자(9), 외국인 유학생(13), 난민(9)	74명

<표 5>와 같이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총 43명으로 출신국은 베트남 26명, 필리핀

7명, 태국 3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라오스 1명, 인도네시아 1명이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주기간 모두 3년부터 18년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현재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다문화강사나 통·번역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는 총 9명으로 이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3명과 스리랑카 5명, 베트남 1명이다. 이들의 나이는 20대와 30대이며 성별은 남자 6명과 여자 3명이다. 이들의 거주기간은 짧게는 2년이며 길게는 9년이었고 학력은 최소한 고졸이상이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식품가공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셋째, 동남아시아계 유학생은 총 13명으로 한국의 정규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 5명, 캄보디아 4명, 필리핀 3명, 스리랑카 1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6명, 여성 7명이었으며 나이는 대부분 20대와 30대 초반이었다. 학위과정은 학부 5명,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3명이었으며 정부초청장학생, 대한항공장학생, 글로벌장학생으로 장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넷째, 난민은 총 9명으로 미얀마 카렌족 6명과 방글라데시 줌머족 3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가 5명, 여자가 4명이며 나이는 30세부터 48세까지이다. 이들의 거주기간은 짧게는 1년 4개월이고 길게는 19년이었다. 이렇게 2차년도에 선정한 동남아시아계 국가별·유형별 다문화 구성원의 심층 인터뷰한 연구참여자는 총 74명이었으며 베트남 37명, 필리핀 9명, 스리랑카 6명, 미얀마 6명, 캄보디아 4명, 인도네시아 4명, 방글라데시 3명, 태국 3명, 네팔 1명, 라오스 1명이다. 이러한 심층인터뷰와 더불어 국외 다문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베트남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1차년도에 구축한 서버 및 기본 체계에 2차년도에 수집한 동남아 출신 이주민들의 생활세계 생애담 자료를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3. 3차년도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연구의 목표 및 내용

본 연구 3차년도에서는 1차년과 2차년에서 개발한 이론과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에 근거하여 나머지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재외동포인 고려인 및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을 배경으로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차년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생활세계 적응 생애담 연구를 하였다.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애담, 그리고 사할린 한인의 삶이야기 총서 2권(7, 8

권)을 집필하였고 추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한인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2권의 총서(9, 10권),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상호문화 소통에 대한 총서(11권)를 집필하여 발간을 앞두고 있다(7월 30일 발간예정). 국내 결혼이주여성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이는 완전한 문화적 동화를 추구하는 동화모델인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경제적 동화'(고상두, 2012: 260)를 포함하여 서로 간 합의된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상호문화모델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의 현실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동화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복지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국내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논의는 그동안 서구 사회통합정책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3차년도 최종 목표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 생애담에 대한 7권과 8권을 발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2) 파일럿 연구, 3) 국내·외 사회통합정책 동향에 관한 문헌연구, 4) 사회통합정책 모형 개발, 5)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밖에도 한국에서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한인이주여성들의 생애담을 2권 추가로 집필하였다. 연구방법은 2차년도와 동일하게 1)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연구진은 중앙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을 유형별로 결혼이주여성 21건, 사할린 한인 12건, 고려인 한인 13건, 중앙아시아출신 유학생 8건, 독일, 미주 한인 국제결혼 여성 15건 총 69건에 대한 자료 생성, 2) 사회통합정책 모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프레임 구축, 3)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학술대회, 국제 학술대회, 정기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연구진 워크숍 등 토대연구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 진행 이러한 연구 수행의 결과, 3차년도의 목표로 제시한 3권의 총서에 대한 원고 작성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독일, 미주 한인 여성 생애담을 집필하였다.

2) 세부 추진 실적

본 연구팀의 3차년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3차년도 계획 및 추진결과

계획		추진결과	비고
당초 계획	현지조사	- 3차년도 사례조사 계획은 60건이었으나 총 69건의 사례조사 실시 - 중앙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 총 54명 사례조사 실시 - 독일, 미주 한인여성 15명 사례조사 실시	
	정기 워크숍 3회 개최	- 연구 사업 개시(2019년 3월), 중간보고(2019년 월), 팀별 최종보고(2019년 11월) 3회 정기 워크숍 개최 완료 - 3회 정기 워크숍 이외 팀별 온라인 모임을 통해 저서작성을 완료함 ※ 워크숍 당초 3회 계획 대비 4회 추가 실시	
	사회통합 총서 7권, 8권, 9권 발행	- 『총서 7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연구』 집필 완료 및 발행(2020년 12월 출간) - 『총서 8권. 동남아시아계 이주민의 다문화생활세계 생애담』 집필 완료 및 발행(2020년 12월 출간) - 『총서 9권.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 집필 완료 및 발행(2021년 4월 출간예정: ISBN: 978-89-6324-758-8(94300)) - 『총서 10권. 미국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공동체』 집필 완료 및 발행(2021년 4월 출간예정: ISBN: 978-89-6324-759-5(94300)) - 『총서 11권.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상호문화 소통』 집필 완료 및 교정 중(2021년 7월 출간예정: 978-89-6324-760-1(94300))	총서 6권은 인하대학교 지원에 의해 발간함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중앙아시아계 다문화 구성원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수행 결과 관련 실적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 글로벌 다문화 포럼, 디지털로지 인문사회 포럼, - ICME 국제학술대회 준비, 초국적 이주와 사회통합 학술대회 등 총 9회의 다양한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연구과제 관련 학회 논문 게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 연구인력, 전문위원 등 본 연구와 관련하여 KCI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총 11건의 논문을 게재함	
	연구역량 및 지식확산 제고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해외학자 초청 특강 실시(2회 개최) - 이주 및 다문화, 사회통합 이론 관련 국내학자 초청 특강 실시(20회) - 언론보도자료(17건)	

3차년도 연구 실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계 이주민 그리고 재외 한인 여성 생애담, 둘째,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의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및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실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통합 총서 집필(7, 8, 9, 10, 11권)

본 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사회통합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통합 총서를 집필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국내·외 사회통합 정책 및 이론에 관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생애사적 내러티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이론 연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영역별 사회통합 총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서 7권 『중앙아시아계 이주여성의 삶: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는 중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협상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기술한 저서다. 총서는 특히 중앙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이 이주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이중적 위치로 다양한 갈등적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삶에 대응하는 행위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 다문화 구성원들의 근원적인 삶과 열정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의 바탕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총서 8권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야기』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생활세계 구성원으로 영주귀국을 한 사할린 한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A씨와 같은 사할린 한인을 슬픈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으로 조명했다. 이 책의 특징은 영주귀국을 한 사할린 한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 전의 삶과 이주 후의 삶을 디아스포라와 노스텔지어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이들에게 느껴지는 사할린과 한국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하고, 사할린과 한국의 삶의 경계에서 어떻게 초국가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탐구했다.

총서 9권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들의 초국적 삶과 정체성』에서는 독일의 한인 이주여성들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세계화 시대와 네트워크 사회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혐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철학자 이졸데 카림(Isolde Charim, 2018)은 타자 혐오의 핵심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야기한다고 분석한다. 반세기 전 독일로 이주한 한인여성들의 기나긴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을 진단하고, 한국을 떠난 이민자들, 특히 독일로 이주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서 10권 『미국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삶과 공동체』에서는 미국의 한인이주여성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각각 다른 스토리를 가진 7인의 한인 이주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변방의 존재 혹은 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공통적으로 초국적인 삶을 살아온 한인 이주여성들이다. 성

을 동시에 누리며 양국의 국민으로서 초국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인 삶을 살아온 7명의 연구참여자의 생애담은 현재의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그녀들의 삶이 과격과 혁신과 같은 거창한 삶 즉 개인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온 삶이 아니라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공동체 속에서 초국적 삶을 발현했다는 점이다. 7명의 연구참여자도 여느 이주민처럼 언어로 인한 소통의 벽, 남편과의 갈등과 이혼, 자존감의 문제, 문화 충격, 문화 갈등을 경험하는 시련과 갈등의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초국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함께 비혈연 관계의 가족 울타리, 즉 이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총서 11권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상호문화 소통』에서는 8명의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상호문화 소통 경험의 양상을 기술하고 상호문화 소통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람들과 한 소통은 한국 유학생할, 한국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유학생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분석한 결과 자극선호가 ‘따뜻한 마음’이었던 연구참여자들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공감 → 글로벌 태도 → 동기 → 상호작용 참여’ 등 과정을 통해서 함양자극선호가 ‘새로운 경험’이었던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글로벌 태도 → 상호작용 참여’를 통해서 상호문화소통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상호문화소통 경험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들은 한국에 유학을 와서 느꼈던 외로움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호문화소통은 유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나 문화, 또는 학업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 역량은 타문화권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향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상호문화소통은 인간 자체 및 본질에 대한 교훈이었다. 그들은 상호문화소통을 통해 유사한 점이나 차이점을 찾고 이러한 다른 점을 ‘틀림’으로 아니라 ‘다양함’으로 인식하고 다양성을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에게 상호문화소통은 곧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앙아시아계 이주민의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 및 현지조사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본 연구의 목적인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사회통합 총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국내 거주 중인 동남아시아계 다문화구성원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로 구분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7> 유형별 연구참여자

국가명 유	유형별(명)	총인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 독일, 미국 외	사할린 한인(12), 고려인(13), 결혼이주여성(21), 독일이주 한인여성(9), 미주이주 한인여성(7), 외국인 유학생(8)	78명

<표 II-2>와 같이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총 21명으로 출신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카자흐스탄으로 다양하게 드러난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주기간 모두 3년부터 18년까지 다양했다. 이들의 현재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공장의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다문화강사나 통·번역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둘째, 재외한인은 모두 41명이다. 그중 사할린 한인은 12명, 고려인 한인은 13명, 독일이주 한인 여성은 9명, 미주이주 한인 여성은 7명이다. 한인들의 연령대는 모두 60세 이상이며 사할린 고려인 한인들은 영주귀국을 선택하셨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독일 이주 한인여성과 미국 이주 한인여성들은 월드킴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이들이 한국에서 대회를 열 때 이들을 만나 생애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중 일부는 독일 현지에서 인터뷰를 직접 진행한 분도 2분이 있다. 이들의 나이는 60대와 7대이며 이들의 해외 거주기간은 짧게는 20년 이상이며 독일이나 미국 국적을 소유하였고 소속국에서 어느정도 재력을 갖고 있으셨다. 대부분 자신의 전문직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셋째, 중앙아시아계 유학생은 총 8명으로 한국의 정규대학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8명이다. 3차년도는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 시기여서 현장연구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다.

3년간 구축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아카이브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소에서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자료는 본 연구소가 구축한 DSpace 서버에 저장하여 국내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최종 구축된 아카이브는 강화된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구소 내에서 연구윤리 이수교육을 받은 연구자 그리고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친 자에게만 공개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학문적 기여

(1) 사회적 담론 확장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본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적응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사회통합의 담론을 뛰어넘어 이들의 문화공존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통합총서 11권 발행, 등재후보이상 학술지 논문을 총 44편 게재, 관련 주제 학술대회 발표 50건, 주제 관련 저서 15권 집필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사회 그동안 산재 되어 있던 국가별 사회통합정책의 동향을 하나의 총서에 담아내어 연구자들에게 국내·외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다문화 구성원들의 실제적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담론을 확산시키며 관련 이슈를 재생산함으로써 학술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힐 것이다.

(2)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접근

에스노그래피는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문화공존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그들이 속한 문화공유집단이 갖고 있는 가치, 행동, 신념, 언어 등 학습된 문화적 패턴을 기술 해석하고, 그들의 국가별,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생활세계 속의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즉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별, 유형별, 영역별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내용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합의에 의한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본 연구는 주류사회로부터 각종 사회제도에서 소외되고 타자화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구성원들의 근원적인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사회학과 교육학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여성학, 복지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저변 확대와 융복합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현실 대응적 실행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1) **다문화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정책의 기틀 마련**
기준에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정책은 정주자와 이주자의 문화 갈등 해소를 위해 동질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동화주의 위주의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이들의 한국에서의 적응, 정체성 확립, 재사회화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문화상대주의적인 태도와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물은 인권법 및 정책 개발, 언어교육 프로그램, 건강 및 의료, 복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물에는 각 국가별 고유한 문화와 인식체계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사회, 문화, 정치, 여성, 복지, 교육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화적 공존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영역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실제적 자료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외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지역 내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와 사회통합 총서는 다문화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생활세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다문화 구성원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교류 활성화,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복지 및 서비스 제공, 정책 수립 등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3) 인력 양성 방안

(1) **질적연구자로서 역량 강화**

본 연구에 참여한 전임연구원 및 학문후속세대(석 박사급 연구보조원)들에게 현지조사 또는워크숍, 학술대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현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원과정에서 개발되어야 할 핵심역량(기본역량, 국제화역량, 학문공동체 참여역량, 지식역량, 연구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원들은 각자의 연구분야에서 보다 학술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을 구현하는 데 전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다문화 구성원들 즉,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들에 대한 심층적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통해 그들이 지닌 잠재적 달란트, 기술, 외국어 등의 역량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역량을 통해 모국과 거주국,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 구성원들 중에서 초기에 이주한 구성원들의 롤모델로서의 역할, 즉 멘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3) 다문화교육 관련 강의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들과 내국인 간의 문화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를 강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나 문화에 대해 학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나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이민자 대상의 사회통합 지원정책에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들과의 긴밀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자료, 워크숍, 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 등에서 습득한 역량을 통해 다문화 구성원들과 내국인들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1)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그들의 삶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지조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이 잘 녹여져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의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구성원과 내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담론을 변화시킬 최초의 이론 및 정책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사회통합의 문제점을 단편적이 아닌 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당위성을 역설함으로써 사회통합 논의와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주요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2)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자료로 활용

본 연구는 다문화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회통합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삶을 통한 다문화교육은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의 모국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

점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국인에게 문화상대주의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다문화 구성원과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간된 사회통합 총서들은 상호 간의 문화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3) 다양한 교육현장 및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사회통합교육의 교재로 활용

본 연구 결과물은 각 대학의 학제간 융합과정이나 이주 및 다문화(교육) 관련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 구성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은 대부분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올바른 문화교육과 사회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다문화 구성원들의 문화, 정서, 인식체계가 담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구성원들의 생활세계가 담긴 사회통합 총서는 인류 보편적 정서를 다루면서도 각 국가별 민족별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호문화교육에 매우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이 사회통합 총서 자료를 활용한 문화교육과 사회통합교육을 통해 이주자는 주체성과 주도성을 가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정주자는 이주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동등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초 중 고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교재, 다문화교육 교사 양성 교재, 다문화 교과 교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성과

본 연구팀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은 사회통합 총서 발간(10권)과 다문화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한 외에 3년 동안 이루어낸 연구수행 결과 관련 실적을 크게 참여연구진 실적과 다문화융합연구소 실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참여연구진 실적

본 연구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 연구보조원의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논문게재(사사표기 논문 총 44편)

다음은 연구진들이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국내 등재 후보이상, 국제 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이다.

<표 8> 연차별 학술 논문 계획 및 실적

년도	실적종류	계획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1차년도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특정하지 않음	20	과달성
2차년도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특정하지 않음	14	과달성
3차년도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 특정하지 않음	11	과달성

연구진 논문의 연차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9> 연구진 논문의 연차별 주제

년도	일자	논문주제	게재학술지
1차 년도	2018.0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정책의 연구 -인권침해의 방지 및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게재	법과정책 18(1)
	2018.04.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게재	여성학연구 28 (1)
	2018.04.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게재	한국언어문화학 15(1)
	2018.04.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차별 경험 의미화 과정 연구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게재	문화콘텐츠연구 12
	2018.04.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진로개발 경험에 나타난 전환학습 탐색” 게재	교육문화연구 2 4(2)
	2018.04.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중국 준절과 한국의 설에 대한 사례연구” 게재	다문화와 평화 12(1)
	2018.04.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실제와 방향성에 관한 연구” 게재	인문사회21 9(2)
	2018.04.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공립 다문화학교 교사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게재	교육문화연구 2 4(2)
	2018.05.	“사회통합적 접근에서 본 재한중국 유학생의 여가경험 의미 분석” 게재	여가학연구 16 (2)
	2018.05.	“국내·외 인권정책을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의 방향 모색” 게재	문화교류연구 7 (2)
	2018.06	“재한 중국동포 유학생의 문화 적응 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협상과 그 의미” 게재	겨레어문학 60
	2018.06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교육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의 A대학교를 중심으로” 게재	교육문화연구 2 4(3)
	2018.06.	“중국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차별 경험을 통한 인권보호 대안모색” 게재	교육문화연구 2 4(3)
	2018.12.	“재독 한인 국제결혼여성의 생애사에 나타난 이주의 의미” 게재	교육문화연구 2 4(6), 교신저자
	2018.12.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ing In A Cooperative-Learning-Based Class” 게재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 cational Techno- logy, 주저자
	2018.12.	“통합을 지향하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양상	문화콘텐츠연구

		과 의미화 방식에 대한 고찰” 게재	14, 단독
	2019.01.	“Exploring the Narratives on Domestic Violence Experienced by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게재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교신저자
	2019.02.	“재독 한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게재	다문화사회연구 12(1), 교신저자
	2019.02.	“문화번역 개념을 통한 상호문화 한국어 교육 패러다임 탐색” 게재	언어와 문화 15(1), 교신저자
	2019.02.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스토리텔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게재	문화교류연구 8(1), 교신저자
2차 년도	2019.03.	“스리랑카 이주 집단의 적응 전략과 다중적 정체성” 게재	국제지역연구 23(1), 교신저자
	2019.03.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immigrant youths” 게재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2019) 24, 교신저자
	2019.04.	“부모와의 관계 맺기 방식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게재	문학치료연구 51, 단독
	2019.04.	“학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게재	교육문화연구 25(2), 단독
	2019.05.	“재한 중국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게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교신저자
	2019.0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여가경험과 의미” 게재	문화교류연구 8(2), 교신저자
	2019.05.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에 관한 상호문화적 해석” 게재	문화교류연구 8(2), 단독
	2019.06.	“카렌족 재정착 난민의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게재	디아스포라연구 13(1) 교신저자
	2019.06.	“다문화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청소년의 다문화 멘토링 경험에 관한 연구 “ 게재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교신저자
	2019.06.	“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게재	인문사회21, 주저자
	2019.06.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게재	다문화사회연구 12(2), 단독
	2019.06.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 금지원칙” 게재	한국법정책학회, 교신저자
	2019.06.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의 대학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경험에 관한 연구 “ 게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1), 교신저자
	2019.06.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현장에서 문화갈등 사례연구 “ 게재	현대사회와 다문화 23(6), 주저자
3차 년도	2019.09	베트남 소수민족 교육 현황과 사례분석: 짚라이(Gia Lai)성 소수민족 교육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17)
	2020.02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2020.02	난민공동체에 나타난 민족정체성에 관한 질적연구	현대사회와다문화, 10(1)
	2020.02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열린교육연구,

	현상학적 연구	28(1)
2020.05	통일교육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통일문제연구, 32(1)
2020.06	미국 다문화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고찰	교육문화연구, 26(3)
2020.07	1970-80년대 서유럽으로 유학한 한인 여성의 입과워먼트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2020.08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초국적 정체성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언어와문화, 16(3)
2020.09	다문화가정 학생 진로상담에 관련한 국내연구 동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8(3)
2020.11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2020.11	Exploring the Meaning of Double Nostalgia in the Life Histories of Sakhalin Korean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23(2)

(2) 학술대회 발표(50회)

본 사업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전임연구원, 공동연구원은 연구기간동안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대회 발표를 진행하였다.

<표 10> 연차별 학술대회 발표 주제

년도	일자	내역	비고
1차 년도	2017.09.12	2017 제8회 아시아미래지식인 한중일 국제학술포럼 “아시아 다문화 현상 사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실태” 발표	서울 혁신파크
	2017.10.21.	한국언론학회 2017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인문도시와 소통: 도시공간과 이야기하기가 가능한가?” 발표	중앙대
	2017.10.27.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전통명절 경험을 통해 본 문화접촉” 발표	국립한국교통대
	2017.10.27.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치료 방안 탐색” 발표	국립한국교통대
	2017.10.28.	2017年第八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中韩关系的现状及未来展望学术研讨会论文集 “중국계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발표	중국 중앙민족대
	2017.10.28.	2017年第八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中韩关系的现状及未来展望学术研讨会论文集 “중途入韩青少年的整体性治理因素研究” 발표	중국 중앙민족대
	2017.11.1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우즈베키스탄 대학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	계명대
	2017.11.10.~11.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5차 전국학술대회 “이주민 생활세계 아카이브 구축 방안” 발표	계명대
	2017.11.25.	2017년 추계학술대회 질적연구의 즐거움 “질적연구, 세상에 물음 던지기” 발표	호연재교육문화원
	2018.01.03.	2018 이화다문화연구소 학술대회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다양성에서 이타성으로” 발표	한국 이화여대
	2018.0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다문화사회의	베트남 다

	2.07.~09.	한국문화교육” 발표	낭외대
	2018.02.07.~09.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A STUDY on the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공동 발표	베트남 다낭외대
	2018.02.07.~09.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 발표	베트남 다낭외대
	2018.02.07.~09.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이중언어 교육 경험의 의미” 공동 발표	베트남 다낭외대
	2018.02.07.~09.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사회통합을 위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교육서비스에 관한 연구” 발표	베트남 다낭외대
	2018.03.13.~14.	THIRD CONFERENCE ON ONE ASIA COMMUNITY IN EUROPE: MIGRATION IN ASIA “Double Nostalgia: Life History of Sakhalin Immigrant Koreans” 발표	이탈리아 로마대
	2018.03.24.	한국리터러시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다문화 리터러시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탐색” 발표	성균관대
	2018.03.24.	한국리터러시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제한 이주민의 언어문화 리터러시 경험에 관한 연구” 발표	성균관대
	2018.04.28.	한국리터러시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생활세계 형성 경험” 발표	성균관대
	2018.05.19.	2018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 역사” 발표	인하대
	2018.05.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문화 리터러시 경험의 의미” 발표	인하대
	2018.05.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중국계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양상과 그 의미” 발표	인하대
	2018.05.20.~22.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사할린 학술대회 “A Study on the Nostalgia of Sakhalin Korean Immigrants” 발표	사할린 인문기술대
2차 년도	2018.10.27.	2018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에서 “A Study on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Women in Germany” 발표	한국 인하대학교
	2018.11.09.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민속학의 경계 넘기: 지역과 민족에서 다문화로” 발표	인하대학교
	2018.11.10.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 “포토텔링 기반 사할린 영주 귀국자 생애 스토리텔링 모형” 발표	인하대학교
	2018.11.10.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 “생활세계 기반 다문화 스토리텔링의 필요성과 그 방향: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발표	인하대학교
	2019.0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재중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대한 연구” 발표	일본 메이오 대학교
	2019.0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학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성장에 관한 연구” 발표	일본 오키나와 메이오대학교
	2019.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동남아시아계 유	일본 메이

	1.21.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경험에 관한 연구” 발표	오대학교
	2019.0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재정착 난민 적응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일본 메이오대학교
	2019.01.2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동남아시아계 이주 노동자의 문화 적응 생애담 연구” 발표	일본 메이오대학교
	2019.05.04.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마을문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전라남도 무안군 북길리 이야기” 발표	목포대학교
	2019.05.04.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동남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형성- 문화 적응과 경제적 적응을 중심으로” 발표	목포대학교
	2019.05.0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발표	목포대학교
	2019.05.03.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대한 상호문화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발표	목포대학교
	2019.05.19.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6차 전국학술대회 “중국제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양상과 그 의미” 발표	인하대학교
	2019.05.2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8차 전국학술대회 “가정해체를 경험한 이주여성의 자녀 언어 학습 경험 연구” 발표	연세대학교
3차 년도	2019.11.15.-17	2019 年第十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학술대회 “Life Story of Korean Migrant Women in Germany: focused on Identity Negotiation” 발표	인하대학교
	2019.11.15.-17	2019 年第十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학술대회 “在韩中国移民者的跨文化适应研究” 발표	인하대학교
	2019.11.15.-17	2019 年第十届东北亚民族文化论坛학술대회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발표	인하대학교
	2019.12.14.	제29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사회통합 총서” 발표	인하대학교
	2020.05.07.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워크숍 “다문화사회의 리터러시와 프락시스의 변증법의 이해” 발표	서울교육대학교
	2020.05.07.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워크숍 “애니메이션 리터러시를 통한 다문화 미디어교육” 발표	서울교육대학교
	2020.05.30.	2020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생애담 연구” 발표	호남대학교
	2020.05.30.	2020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독일 한인이주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생애담 연구” 발표	호남대학교
	2020.06.26.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사회통합정책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 탐색” 발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2020.07.04.	202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30차 전국학술대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적응 생애담 ” 발표	온라인 개최
	2020.07.04.	202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30차 전국학술대회 “재독 한인이주여성의 생애담 연구 모형과 실제” 발표	온라인 개최
	2020.07.04.	2020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30차 전국학술대회 “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 탐색” 발표	온라인 개최

(3) 연구보조원의 학위 배출실적(6건)

본 연구에는 3년간 모두 9명의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생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고 그중 6명이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연차별 졸업생의 학위 논문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보조원의 학위논문 주제

연차	학위논문 주제	취득학위
1차년도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 인정투쟁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2차년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이야기융합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 사례연구	박사학위
	초등교사의 탈북학생 교육 경험에 관한 상호문화교육적 의미 탐구	박사학위
3차년도	과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의 이주생애사 연구	박사학위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거절 화행에 관한 연구 : 비교문화 화용론적 접근	박사학위
	한부모이주여성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박사학위

(4) 공동저서 발간(15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진은 사사표기한 사회통합 총서 10권 이외에도 토대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시일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서 이외 다양한 국내 다문화관련 저서들을 발간하였다.

<표 12> 총서 이외 저서 발간 실적

일자	내역	비고
2017.12.30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발간	북코리아
2018.01.18	“질적연구의 즐거움” 발간	창지사
2018.02.25	“인문 콘텐츠와 인물 스토리텔링” 발간	북코리아
2018.02.25	“마을 문화기술지와 스토리텔링” 발간	북코리아
2018.06.15	“카자흐스탄 고려인 생애사 스토리텔링 연구” 발간	북코리아
2018.06.15	“사할린 한인의노스텔지어 이야기 탐구” 발간	북코리아
2018.06.15	“사할린 한인의 다양한 삶과 그 이야기” 발간	북코리아
2018.09.30	“공유된 미래 만들기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발간	한국문화사
2019.03.15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발간	북코리아
2019.09.30	“다문화교육과 협동학습 경험” 발간	북코리아
2020.01.30	“사할린 한인 한국어 교육자의 생애 이야기” 발간	한국문화사

2020.02.18	“한국다문화사회의 교육과 복지 실천” 발간	집문당
2020.03.3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발간	북코리아
2020.11.30	“다문화 사회와 리터러시 이해” 발간	주(박이정)
2021.01.30	“중국동북지역 소수민족 문화 이해” 발간	북코리아

2) 다문화융합연구소 실적

다문화융합연구소는 토대연구를 통해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학제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을 열었고 연구분야의 확장을 가져왔다. 연구진들의 개별 연구실적 이외에 토대연구를 통해 다문화융합연구소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소는 연구기간동안 영문학술지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JME)》(등재후보)를 매해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발간하고 있으며, KCI등재 국문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을 2020년부터 국제문화교류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본 연구소는 이밖에도 학문의 지역사회 확산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2020년 10월에는 인문융합치료센터와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산하에 설립하였다. 이밖에도 그 산하에 다문화교육연수팀, 이주민상담클리닉, 지역사회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교사들을 위한 직무연수를 분기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상담클리닉에서는 이주민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적응과 정서지도를 지원하였고, 법무부 사업인 ‘유학생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이렇게 본 연구소는 학문과 실제 교육현장과 밀접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다문화에 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의 장을 만들었다. 더욱이 본 연구소는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와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전공자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진로분야의 자격증 취득지원, 다문화교육 실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문화교육기관을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대학원생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를 매해 2회씩 개최해 오고 있다.

본 연구소는 토대연구 기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독교육학회, 인하대 교육연구소, 인하대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단과 공동으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베트남,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 소재한 5개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다문화교육 관련 22개 연구소 및 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국내 학자 초청 워크숍 39회, 해외학자 초청 특강 15회를 개최하여 국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보도 자료(28건)

본 연구소의 다양한 학술활동은 아래와 같이 신문기사로 보도되어 연구 결과에 대해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개선에 일조하였다.

<표 13> 언론보도자료 주제

일자	내역	비고
2018.05.24.	본 토대 연구팀 연구소와 사할린 주한인회의 협력협약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이 러시아 지역방송 출연	러시아 사할린 우리말방송
2018.05.25.	본 토대 연구팀 연구소와 사할린 주한인회의 협력협약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이 러시아 지역 신문기사 게재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
2018.10.23.	본 연구소 공동개최한 “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2018)ICME” 개최 신문기사 게재	내일신문
2018.10.28.	본 연구소에서 공동 주관한 “인하대 교육대학원 한국 베트남 학자교류 및 상호 교육기관 방문” 신문기사 게재	인천일보
2018.11.08.	본 연구소 공동주관 “2019 한국민속학자 대회” 신문기사 게재	교통뉴스
2019.02.27.	본 연구소 주관 “제9회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19.03.19.	본 연구소와 인천시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업무 협약” 신문기사 게재	인천보도제작국
2019.03.30.	본 연구소 주관 “인하대 고베대 국제 워크숍 개최” 신문기사 게재	국민일보
2019.05.01.	본 연구소 주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 사업 “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19.09.06.	본 연구소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업무협약식 신문기사 게재	내일신문
2019.09.19.	본 연구소 연구책임자가 주제발표를 한 에서 공동 주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신문기사 게재	인천일보
2019.10.08.	본 연구소 재외한인여성연구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월드킴와(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건 신문기사 게재	교통뉴스
2019.10.21.	본 연구소 주관 “제27회 글로컬다문화교육포럼 해외학자 초청 특강”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19.10.24.-25.	다문화융합연구소-베트남 국가행정학원 국제워크숍 개최 신문기사 게재	인천보도제작국
2019.11.09.	본 연구소 주관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우즈베키스탄 국립사범대학 우크탐 교수 특강” 신문기사 게재	국민일보
2019.11.26.	본 연구소 주관 “2019 ICME(다문화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19.05.01.	본 연구소 소장 발제한 “서울교육청-남부3구 공동포럼” 신문기사 게재	연합뉴스
2019.11.17.	본 연구소 공동주관 “2019년 제10회 동북아민족문화 포럼 (국제학술대회)”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20.03.30.	본 연구소 주관 “인하대 호남대 업무협약체결” 신문기사 게재	한국대학신문
2020.03.30.	본 연구소,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과 교류협력 협약 체결 신문기사 게재	이뉴스투데이
2020.04.14.	본 연구소,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 상호협력 업무협약체결 신문기사 게재	경인일보 외
2020.05.30.	본 연구소, ‘2020’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하대 다문	국민일보 외

	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신문기사 게재	
2020.06.26.	본 연구소,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개최 신문기사 게재	아주경제 외
2020.07.07	본 연구소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콜로키움 개최, 신문기사 게재.	교수신문 외
2020.07.20.	본 연구소, 다문화사회와 다종교교육 포럼 열어 신문기사 게재	교수신문 외
2020.08.11.	본 연구소, 2020 ICME(다문화교육 국제학술 대회) 개최 신문기사 게재	교수신문 외
2020.8.11.	본 연구소, “2020 인천세원고 제3회 PRIDE 학술제” 공동 운영 신문기사 게재	국민일보 외

(2) 국내 학술대회 개최(19회)

본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의 장을 확장시키고 연구결과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표 14> 국내 학술대회 개최 내용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내용
1	제12회 디지털로지 인문사회 실천 포럼	2017.10.14	안동대	안동대 · 서울대 DHSP와 공동개최(발표자 3)
2	이주민 생활세계 연구를 위한 구술사 방법 탐색	2017.10.20	인하대	인하대 개최(발표자 2)
3	초국적 이주에 따른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17.10.21	인하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12)
4	초국적 이주와 사회통합	2017.12.19	인하대	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와 공동개최(발표자 4)
5	초국적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2018.04.28	인하대	인하대 교육연구소와 공동개최(발표자 12)
6	문화교류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교육	2018.05.19	인하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24)
7	이주민 사회통합과 사할린 동포 법적지위	2018.07.23	인하대	사할린동포 학술대회 공동개최(발표자 1)
8	황해의 경계를 넘어선 한민족을 보다	2018.11.09	인천문화재단	한국민속학자대회와 공동개최(발표자 15)
9	평화, 포용, 그리고 교육	2018.11.10	인하대	한독교육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7)
10	병렬말뭉치, 기계 번역, 문화번역	2018.12.15	서울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32)
11	4차산업혁명과 글로벌다문화교육	2019.05.03	목포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18)
12	뉴미디어시대의 한국어문화교육	2019.05.25	연세대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18)
13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토론회	2019.08.12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 고려인문화적응연구회 공동개최(발표자 4)
14	글로벌시대 한국어문화교육의 이론과 방법 탐색	2019.12.04	인하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공동개최(발표자 24)
15	다문화사회와 리터러시 워크숍	2020.05.07	서울교육대학교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개최(발표자 9)
16	2020년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하대	2020.05.30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개최(발표자 6)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17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다문화사회와 연구 공동체	2020.06.26	송도 센트럴 파크호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외 공동 개최 (발표자 5)
18	2020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인문학 포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다문화인문학	2020.07.07	송도 센트럴 파크호텔	본 연구소 주최주관 (발표자 5)
19	2020년 다문화 사회와 다종교교육 포럼	2020.07.17	인하대학교	본 연구소 주최주관 (발표자 11)

(3) 국제 학술대회 개최(10회)

본 연구소는 이밖에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해외 이주 다문화 관련 사례를 배우고 전문가들의 연구성과에서 본 연구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자문을 구할수 있었다.

<표 15> 국제 학술대회 개최 내역

No.	학술대회명	개최기간	개최장소	발표자 수		
				내국인	외국인	계
1	제8회 아시아 미래 지식인 포럼	2017.09.12-15	서울 혁신파크	16	8	24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2018.02.07-19	베트남 다낭외국어대	28	10	38
3	Cycle of Lectures and workshops	2018.03.17-19	부산대	21	7	28
4	2018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2018.10.27	인하대	4	13	17
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2019.01.21-23	일본 독협대	12	9	21
6	인하대 - 고베대 국제학술대회	2019.03.26	인하대	8	9	17
7	베트남 국가행정학원 국제워크샵	2019.10.24~25	베트남 하노이대	8	5	13
8	2019年第10次 東北亞民族文化論壇	2019.11.15-17	중국 중앙민족대	2	52	54
9	2019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lticulture and Education)	2019.11.23	인하대	7	6	13
10	2020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2020.08.06	온라인	4	12	16

(4) 국내 학자 초청 특강(39회)

본 연구소에서는 국내 다문화교육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매월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관련 학자와 교사, 실천가, 학생 등이 참여하여 국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초청 학자 그리고 강연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6> 국내학자 초청 특강 주제

No.	이름(소속)	특강 주제	실적년월
-----	--------	-------	------

1	김성미경 (아이다마을 대표)	이주여성 공간과 젠더정치	2017.09
2	허오영숙 (이주민여성쉼터 대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 현황	2017.09
3	박종도 (인천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디지털 아카이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17.09
4	김효진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대표)	다문화 현장이야기: 폭력피해이주여성의 자립	2017.11
5	장한업 (이화여대 상호문화교육학과 교수)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	2018.01
6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과 교수)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2018.01
7	박정희(인천교육연수원 원장)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과제	2018.02
8	최충욱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	다문화시대의 초국적이주, 다문화교육의 과제	2018.04
9	정문성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다문화이해교육 교수 · 학습의 실제	2018.04
10	장유정 (중앙대 언론정보학과 연구교수)	노인의 시민성, 그리고 다문화교육	2018.05
11	장은영 (서울교대 다문화교육학과 교수)	제3의 공간-미디어 리터러시와 다문화 교육	2018.05
12	남부현 (선문대 다문화교육센터 센터장)	다문화 정체성	2018.06
13	최충욱 (경기대 명예교수)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2018.12
14	박주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한국 이민정책 흐름 및 추진방향	2018.12
15	이순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다문화교육지도자를 위한 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제	2019.03
16	이종일 (대구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올바름 논쟁	2019.04
17	이강옥 (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꿈 속의 꿈, 그 서사적 표징과 꿈 수행 치료	2019.05
18	유충열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코칭학 교수)	다문화교육의 코칭적 접근	2019.09
19	오은경 (동덕여대 유라시아쿠르크 연구소장)	이슬람과 다문화 사회	2019.09
20	고미영 (서울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야기치료: 포스트모던시대로의 전환	2019.10
21	김선진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다문화 사회의 창의성과 행복	2019.10
22	이민희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도서대여로 본 세계 독서문화 풍경	2019.11
23	오성배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다문화교육의 실제 적용	2020.05.08
24	김중순 (계명대 실크로드연구원 원장)	청년해초의 배낭여행-다문화연구를 위한 교재	2020.05.14
25	김영순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다문화교육학의 정체성	2020.05.20
26	임영호 (부산대학교)	미디어와 관련된 다문화연구	2020.05.21
27	장한업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	2020.05.22

	(이화여자대학교)		
28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다문화시대의 관계 맺기	2020.05.28
29	이병준 (부산대학교)	다문화 · 상호문화역량은 어떻게 발달되는가	2020.05.29
30	윤인진 (고려대학교)	한국의 이민자통합 실태와 과제	2020.06.04
31	오정은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분야 연구직	2020.06.08
32	설규주 (경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의 쟁점과 교사교육	2020.06.12
33	장은영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 리터러시와 비판적 리터러시의 접점	2020.06.18
34	설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의 다문화정책 변화	2020.06.19
35	최중옥 (경기대학교)	다문화교육정책의 패러다임변화	2020.06.25
36	박인옥 (강원대학교)	다문화멘토링과 교육실천(온라인 특강)	2020.06.29
37	남부현 (선문대학교)	다문화정체성 교육	2020.07.03
38	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연구	2020.07.09
39	한정우 (평택대학교)	다문화주의 · 문화상대주의	2020.10

(5)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15회)

본 연구소에서는 국내 다문화교육 구성원들의 관심도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세계 각국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38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양한 해외 이론과 사례를 국내에 소개시키며 학문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연구기간동안 초청 해외학자 그리고 특강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7> 해외학자 초청 워크숍 주제

No.	강연자 / 소속(국가) / 주제	실적일시
1	Hermann Kreutzmann(독일 베를린자유대), “Pamirian Knot at the Crossroads”	2017.10.14
2	Mayinu SHANATIBIEKE(중국 중앙민족대), “cross-border migration of Kazakh people from China to Kazakhstan”	2017.10.14
3	Taeho Kim(일본 코난대), “재일교포의 민족문화교육과 문화정체성”	2018.4.28
4	Huo Meichen(중국 동북사범대), “현대성의 동양적 얼굴: 동북아 영화문화공동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8.4.28
5	Jaesik Cho(미국 와이오밍주립대), “Compassion중심 다문화 교육 이론과 실천”	2018.6.12
6	Volker H. Schmidt(싱가포르국립대학교), “Global modernity and its repercusion”	2018.10.27

7	Jinyu Qi(중국 중앙민족대), “Asia community and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ies”	2018.10.27
8	Yuzo Hirose(일본 교토대), “Trusting rather than understanding others: Another intercultural cosmopolitan”	2018.10.27
9	Uktam E. Xujanazarov(우즈베키스탄교육대), “Ethnic diversity in Uzbekistan”	2018.11.18
10	Douglas Macbeth(미국 오하이오주립대), “현상학과 민속방법론”	2019.5.17
11	Keith C. Barton(미국 인디애나대), “역사학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여: 국가정체성의 탈중심화”	2019.5.22
12	Li Ching Ho(미국 위스콘신대), “동아시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탈식민화 : 싱가포르의 관점”	2019.5.22
13	Roland Reichenbach(스위스 취리히대), “문화적 반대자와 함께 살아가기: 은유, 그리고 이해의 한계”	2019.5.27
14	Taeho Kim(일본 코난대), “재일교포의 민족교육”	2020.2.18
15	Hong jain(미국위스콘신대), “트럼프 시대의 미국 다문화 정책”	2020.07.13

(6) 질적연구 방법론 캠프 개최(6회)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기간동안 연간 2회에 걸쳐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를 개최하였다. 국내 소수자,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심도있는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캠프를 통해 다문화교육에서 질적연구의 기초부터 사례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소수자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토대연구 참여기간 동안 개최한 질적연구방법론 캠프는 총 6회이다.

<표 18> 연구소 개최 질적연구 방법론 캠프 내용

구분	내용요약	실적년월
제7회	2018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개최 현상학, 델파이조사와 FGI, 질적연구와 패러다임, 생애사, 민속방법론, 내러티브, 사례연구방법	2018.01
제8회	2018 질적연구방법론 ‘가을’ 캠프 개최 현상학연구, 생애사, 내러티브, 사례연구	2018.08
제9회	2019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개최 내러티브, 생애사, 사례연구방법	2019.02
제10회	2019 질적연구방법론 ‘가을’ 캠프 개최 내러티브, 담화분석, 근거이론, 사례연구, 생애사 연구방법	2019.08
제11회	2020년 제11회 질적연구방법론 캠프 내러티브연구, 현상학 연구, 질적연구와 코칭, 실행연구, 민속방법론 적용과 실제	2020.02
제12회	2021 질적연구방법론 봄 캠프 개최 생애사, 내러티브,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방법	2020.08

(7) 국내외 기관과의 MOU체결(총 28건)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는 토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

하고 연구의 지경을 확장하고 연구성과를 널리 공유하고자 다양한 국내 다문화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대연구 연구기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본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 해외 대학 연구소 및 기관(7건)

연도	일자	기관	협약 내용
2018	4.25	중국 제남대학교	학생 교류, 연구교류
	5.21	러시아 사할린 인문기술대학교	학생 교류, 연구교류
	5.21	러시아 사할린 한인회	사할린 한인 연구 공동연구
	10.8	키르기스탄 케인대학교	학생 교류,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19	9.21	모스크바 사할린동포연합회	사할린 한인 연구 공동연구
	10.8	월드킴와(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	공동연구, 협력사업
2020	5.28	베트남 달랏대학교	학술교류 연구지원활동

○ 국내 대학 연구소 및 학과(13건)

연도	일자	기관	협약 내용
2017	10.20	건국대 서사문학치료연구소	다문화구성원의 생활세계 및 이주민 생애 답에 연구
2019	11.23	대구대 사회통합연구소	언어,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관련 연구
2020	3.27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평화 통일이해교육과 남북관계 발전연구
	3.27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학 및 다문화리터러시 연구
	4.14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	미디어와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
	4.27	연세대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다문화교육과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6.26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민 · 다문화연구원	이민과 다문화 분야 연구를 위한 상호 유 기적 협력 체계 구축
	6.26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지속가능한 문화공동체의 연대와 발전 도모
	10.28	평택대 다문화센터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0.30	선문대 글로벌다문화교육센터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10.30	선문대 한국어세계화연구소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10.30	선문대 대학원 한국학과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10.30	선문대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공동연구 및 학생교류	

○ 지역사회 다문화교육관련 기관(8건)

연도	일자	기관	협약 내용
2017	11.24	서울이주여성 디딤터	해체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연구
2019	3.19	인천시 교육청 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사업 지원
	4.1	인천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천 거점)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9.6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다문화아동의 기초학력 지도 및 정서지원
2020	10.21	광명시 다문화센터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0.21	부천시 상호문화학당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0.21	인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0.28	서울 양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정책 및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IV. 참고문헌

- 고상두(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고상두, 하명신(2012). 독일 거주 이주민의 사회통합 유형: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출신 이주민 집단의 비교분석. 국제정치논총, 52(5), 23-256.
- 김영순, 이미정, 최승은(2014).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4, 239-272.
- 김용신(2011),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정치사회화 이론의 재해석과 방법적 지향. 세계지역연구논총, 29(1), 87-107.
- 김준현, 문병기(2014), 이민자 사회통합 서비스전달체계 연구: 국가 간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3), 59-90.
- 남부현, 오영훈, 한용택, 전영숙, 이미정, 천정웅(2016). 다문화사회교육론. 양서원.
- 노대명(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0, 6-19.
- 박성혁, 성상환(2008).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2, 19-60.
- 박성혁, 모경환, 김명정(2009). 다문화 군대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연구와 실천, 1, 1-14.
- 설동훈, 이병하(2012). 노르웨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정책. 민족연구, 50, 163-181.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72-103.
- 장인실, 박영진(2015). 다문화언어강사의 문화지능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8(4), 95-15.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201).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그린.
- 최병두(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 1-33.
- 최병두(2012). 동아시아 국제 노동이주: 전개과정과 일반적 특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361-394.
- Bommes, M., & Morawska, E. (2005). International migration research: Constructions, omissions and the promise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 Castles, S &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Third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법무부(2021). 2021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